

# 영광군, 전 군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통한 군민 생명보호 “재난상황서 소중한 생명 살릴 수 있는 능력 향상”

영광군은 최근 이태원 사고 등과 같은 대형 재난상황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Cadio 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해 뇌사를 방지하는 응급처치로 사고발생 후 4분 이내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향상시켜 '4분의 기적'이라 불린다.

이번 교육은 군민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응급구조사의 안전수칙,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 마을경로당, 사업장,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 군민이 재난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영암군, 농촌진흥사업 자체평가회 개최

### 농업 성장동력 강화 모색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 자체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금년도 벼농사를 비롯한 14억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51개소에 대하여 추진된 5개 분야, 20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와 아열대작목 재배 실증시험 및 농가실증재배 사례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평가회를 통해 사업추진상 발생한 미진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자평하며, 보고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화하여 더 많은 농가에 기술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농업을 일궈주신 농업인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농업기술보급 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한 해가 되었다. 내년에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힘이 되는 농촌진흥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 일로읍 새마을지도자, 낙엽 청소·환경정비 구슬방

무안군 일로읍은 지난 8일 일로읍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침수 예방을 위해 가을철 낙엽 청소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로읍 새마을지도자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일로읍사무소 사거리를 중심으로 낙엽이 많이 떨어진 대로변의 골목의 쓰레기들과 낙엽을 치우는 활동을 진행했다. 김장석 일로읍 새마을지도자회장은 “가을철 도로변에 쌓인 낙엽은 통행 시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고 호우 시 도로침수의 위험을 유발한다고 들었다”며 “이번 봉사로 호우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일로 만들기에 일조한 것 같아 보람있다”고 전했다. 김수영 일로읍장은 “추운 날씨 속에도 휴먼지지를 뽐내며 애써주시 일로읍 새마을지도자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일로읍이 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기량향상 분야 ‘행안부 장관상’

### 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신안군은 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 응모하여 ‘기량향상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안군은 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 응모하여 ‘기량향상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평가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응모 및 생산성 지수 측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전국에서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신안군은 “LPG배관망 사업 & 1004 에코호”라는 주제로 도서 특성상 LPG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LPG시설, 행안부 섬마을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LPG가스 공급의 안정성, 물류 운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다목적 연료운반선(1004 에코호)을 건조·운영하고 있어 예산 투입대비 활용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 모든 분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담당하면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안, 앞으로도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 목포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이하 준공영제 용역)에 이어 오는 2023년 1월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이하 공영제용역)을 병행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작할 용역은 목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는 시의회와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준공영제용역을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문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시가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시는 준공영제용역을 통해 내년 1월까지 골목·중부 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목표형 준공영제를 설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이달 말까지 시에 제시할 경영개선(안)과 연계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토론하기 위해 준공영제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별도로 공영제 용역을 1월초부터 병행·추진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1567명 규모...모집기간 12월14일~23일까지

함평군이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함평군은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공익활동 1,467명, 사회서비스

80명, 시장형 20명 등 총 1,567명으로 지난해 대비 67명 증가했다. 자격 요건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군은 소득수준, 세대 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할 방침

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인력은 읍면, 축제엑스포사업소를 비롯한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함평군 노인복지관, 함평 문화원 등 민간수행기관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각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6일까지 각 수행기관에서 개별 통보한다. 함평=김광훈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